

태양이 삼킨 공... KIA, 하늘이 도운 1승



롯데전 연장 10회 최원준 타구 햇빛에 가려 3루까지
김태진, 2사 만루서 생애 첫 끝내기 안타
5위 두산과 0.5게임차...김태진 "팀 5강 싸움에 기여"

하늘이 도운 승리였다.
KIA 타이거즈가 27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연장 10회 승부 끝에 나온 김태진의 끝내기 안타로 2-1 승리를 거뒀다.
말 그대로 하늘이 도왔다.
연장 1회 선두타자로 나온 최원준의 타구가 우측 외야로 향했고, 롯데 우익수 손아섭이 햇빛에 공을 잃었다. 공의 방향을 놓친 손아섭이 포구 지점을 찾아 헤매는 동안 최원준은 3루까지 내달렸다.
이어 김선빈의 잘못된 타구가 2루수 글러브로 빨려 들어간 뒤 롯데가 터커와 최형우를 모두 고의사구로 내보내면서 만루를 채웠다.
막내 홍중표가 대타로 나와 공을 날렸지만 전진 수비를 하고 있던 1루수 글러브로 향했다.
그리고 2사 만루에서 김태진이 타석에 들어섰다. 김태진은 최준용의 초구 직구에 반응하면서 중전 안타를 터뜨렸고, 3루에 있던 최원준이 홈을 밟으면

서 끝내기 안타의 주인공이 됐다. 개인 1호, 시즌 48호, 통산 1175호다.
김태진에게는 앞선 타석의 실수를 만회하는 극적인 안타이기도 했다.
이날 KIA 선발 양현종과 롯데 선발 스트레일리 가 마운드에서 눈부신 선발대결을 펼쳤다.
양현종이 7.1이닝 1실점으로 올 시즌 최다 이닝을 기록했고, 스트레일리로도 7이닝 1실점 호투로 맞불을 냈다.
두 선수가 1-1에서 물러나면서 두 팀의 팽팽한 뒷심 대결이 펼쳐졌다.
9회초 롯데가 2사에서 나온 이병규의 2루타와 폭투로 3루까지 주자를 내보냈지만 홈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9회말에는 KIA가 나지완의 선두타자 안타로 기회를 만들었다.
그리고 김태진에게 시선이 쏠렸다. 윌리엄스 감독은 끝내기 점수를 위해 김태진에게 번트 작전 지

시를 내렸지만 연달아 파울이 나왔다. 결국 강공으로 전환했지만 결과는 헛스윙 삼진이었다.
분위기를 살리지 못한 KIA는 상대 실책으로 2사 1-3루까지는 만들었지만 경기를 끝내지는 못했다.
9회 지속적으로 갔던 김태진은 10회 2사 만루에서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활짝 웃었다.
김태진은 "타석에 들어가기 전에 상대 투수가 공 스피드도 빠르고 힘도 있다고 들어서 직구 타이밍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치자는 생각으로 했다"며 "팬분들도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5강 싸움에 보탬이 돼서 기분이 좋다"고 첫 끝내기 소감을 밝혔다.
앞선 타석에 대한 미안함도 이야기했다.
김태진은 "내가 작전 수행 잘못했으면 그 전에 끝낼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부담감을 안고 타석에 들어갔었다. 그래도 새로운 타석이니가 원위치시켜놓고 하자는 생각으로 했다"고 언급했다.
패기 넘치는 이적생으로 KIA 내야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김태진은 개인보다는 팀을 생각하면서 '5강'에 기여를 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김태진은 "5강 싸움하고 있으니 거기에 보탬이 되고 기여를 할 수 있는 선수가 되어야 할 것 같다"며 "개인적인 목표는 없다. 팀이 5강에 드는 게 중요하다"고 팀을 이야기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이 맛에 야구하지~" 김태진이 27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롯데와 경기 중 연장 10회말 2사 만루에서 끝내기 안타를 친 후 동료들과 기쁨을 나누고 있다. <KIA타이거즈 제공>

광양은 월요일 밤이 좋아

전남드래곤즈 오늘 제주와 나이트 풋볼 경기...8경기 연속 무패 도전



월요일밤 광양축구전용구장이 축구로 뜨거워진다.
전남드래곤즈가 28일 오후 7시 광양축구전용경기장에서 제주 유나이티드와 K리그 2 21라운드 '던데이 나이트 풋볼' 경기를 갖는다.
연승으로 7경기 연속 무패를 잇는 게 전남의 목표다. 전남은 최근 6경기에서 무패(2승 4무)를 달리고 있다. 앞선 안양 원정경기에서 2-1로 이기며 모처럼 승리로 6경기 연속 무패를 찍었다.
앞선 안양전에서 전남은 저력을 보여줬다.
전반 17분 선제골은 내줬지만 전반 27분 김현욱의 날카로운 코너킥이 행운을 불렀다.
문전 경합 과정에서 불이 상대 수비수 뒷머리를 맞고 자책골로 연결됐다.
1-1에서 시작한 후반 4분에는 이유현의 논스톱 슈팅이 골키퍼를 맞고 흐르자, 에르난데스가 골을

잡아 골로 마무리했다. 에르난데스는 8월 22일 충남 아산 원정에 이어 29일 만에 시즌 3호골을 넣으며 분위기 반전을 이뤘다.
승리와 함께 또 다른 소득도 있었다. '광양 루니' 이종호가 부상에서 벗어나 8월 1일 제주 원정에 이어 50일 만에 그라운드로 복귀했다.
돌아온 이종호와 즐리안이 부상을 털고 돌아오면서 전남 공격 옵션이 늘었다. 최근 4경기에서 7골을 넣으며 전남 화력이 살아나고 있고, 수비는 여전히 견고하다.
김준수가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수비진에 골키퍼 박준혁이 최후방을 든든이 지켜주면서 전남은 리그 최소 실점(16)을 달리고 있다.
이번 경기는 장과 방패의 싸움이다. 제주 수원 FC(40골)에 어 36골로 리그 2위 막강 화력을 자랑하고 있다. 전남이 최소실점의 든든한 방패로 제주의 발을 묶고 승리로 연승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전상현, 온다

이번주 키움·두산 원정길 합류

KIA 타이거즈 전상현의 복귀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KIA 전상현은 27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피칭 훈련을 소화했다.
23일 불펜피칭에 이어 다시 마운드에서 피칭을 하며 페이스를 끌어올린 만큼 전상현의 복귀 준비는 막바지에 이르렀다.
무엇보다 통증이 없는 만큼 키움 히어로즈, 두산 베어스와의 어려운 승부가 펼쳐지는 다음 주 원정 6연전 길에 동행해 순위 싸움에 힘을 보탬 전망이다.
전상현은 지난 11일 오른쪽 어깨 염증으로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8월 30일 원 중앙리 근육통에 이어 두번째 말소. 앞선 경우에는 하루 휴식 뒤 바로 1군에 재합류했지만 이번에는 예상보다 마운드 이탈 시간이 길어졌다.
전상현은 "작년에도 그렇고 큰 부상은 아닌데 올해 시작할 때 그렇고 끝나갈 때쯤 부상을 겪었다. 부상을 더 신경 써야 할 것 같다"며 "빨리 부상에서 복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한국야구, ML서 다시 쓰는 '가을의 전설'



류현진

토론토 몬토요 감독 "류현진 몸상태 최상... 1·2차전 선발 가능성"

미국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진출을 확정된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가을잔치 첫 무대인 와일드카드 시리즈 선발 로테이션을 놓고 고민 중이다.
류현진(33)과 타이완 워커(28)를 1·2차전 선발로 활용하는 게 가장 무난한 선택이다.
하지만 찰리 몬토요 토론토 감독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말했다.
몬토요 감독은 27일(한국시간) 미국 현지 매체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류현진의 몸 상태는 정말 괜찮다. 나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류현진은 어느 경기에 내보내건, 우리는 승리할 기회를 얻는다. 1차전, 2

차전 모두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토론토는 30일부터 3전2승제의 메이저리그 와일드카드 시리즈를 치른다. 상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류현진은 토론토 입성 첫해인 2020시즌 12경기에 등판해 5승 2패 평균자책점 2.69를 올리며 1선발 역할을 훌륭하게 해냈다.
특히 25일 정규시즌 마지막 등판에서 뉴욕 양키스를 상대로 7이닝 5피안타 무실점으로 호투했고, 이날 토론토는 포스트시즌 진출을 확정했다.
류현진은 "마지막 등판에서는 포스트시즌을 대비해 투구 수를 조절할 것"이라는 예상

을 깨고, 양키스전에서 올 시즌 개인 최다인 공 100개를 던졌다.
몬토요 감독이 류현진이 등판한 다음 날인 26일 "류현진이 약간의 통증을 느낀다"라고 전하면서 토론토의 포스트시즌 선발 로테이션 예측이 어려워졌다.
류현진의 몸 상태는 이번 가을 토론토의 가장 큰 변수다.
현지 취재진은 27일 몬토요 감독에게 "류현진이 아픈가"라고 물었고, 몬토요 감독은 "류현진의 몸 상태는 괜찮다"고 답했다. 여전히 토론토의 와일드카드 시리즈 1·2차전 선발은 예측하기 어렵다. /연합뉴스

김광현

STL, 오늘 밀워키전 결과따라 결정...김광현, 진출 확정시 3선발 유력

'KK' 김광현(32·세인트루이스카디널스)은 팀이 미국프로야구 포스트시즌(PS)에 진출하면 3선발 중책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세인트루이스 구단은 25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부시스타디움에서 열리는 메이저리그(MLB) 밀워키 브루어스와 홈경기를 앞두고 "카를로스 마르티네스가 왼쪽 복근 부상으로 열흘짜리 부상자 명단에 올랐다"며 "대신 우완투수 요한 오비에도를 콜업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시즌까지 세인트루이스의 마무리투

수로 활약하던 마르티네스는 올 시즌을 앞두고 선발 투수로 보직을 바꿨는데, 3패 평균자책점 9.90의 초라한 성적을 거두고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했다.
마르티네스는 남은 정규시즌 경기에 출전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세인트루이스가 포스트시즌에 진출하더라도 다시 선발 로테이션에 복귀할 가능성도 작다. 세인트루이스는 마르티네스의 전력 이탈로 선발 투수 2명을 잃었다.
지난 19일엔 우완 선발 다코다 허드슨이

오른쪽 팔꿈치 통증으로 열흘짜리 부상자 명단에 올랐다.
CBS 등 현지 언론 매체들은 "세인트루이스는 잭 플레히티, 애덤 웨인라이트, 김광현, 대니얼 폰스 데이리온, 오스틴 고퍼 체제로 선발 로테이션을 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인트루이스가 현재 전력으로 포스트시즌에 진출하면 김광현은 3선발로 활약할 것으로 보인다.
김광현은 이날 밀워키전에서 올 시즌 마지막 선발 등판에 나선다. /연합뉴스



김광현